

2018년 서울시 9급 B형 국어 해설

제공 : 유두선

1. ③ 교각살우 :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.

<오답풀이>

- ① 개과불린 : 허물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뜻
- ② 경거망동 : 경솔하고 분수없이 행동함. 또는, 그러한 행동.
- ④ 부화뇌동 : 천둥 소리에 맞춰 함께 한다는 뜻으로 제 주관 없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말한다.

정답 ③

2. · 꽃내음 -> [꼰내음](교체) -> [꼰내음](비음화)
· 바깥일 -> [바깥일](교체) -> [바깥닐](ㄴ첨가) -> [바깥닐](비음화)
· 학력 -> [항녁](비음화)

정답 ③

3. ③ 조사가 붙으면 <수사>, 명사수식하면 <관형사>
① 관형어 뒤에서 <의존명사>, 명사 뒤에서 <조사>
② 동사 '분다'를 수식하니 <부사> 놀람, 감탄, 의아스러움을 표시하는 <감탄사>

정답 ③

4.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70년대에 해당한다.

정답 ④

5. ① '을'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이므로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연음된다[바틀]

<오답풀이>

- ② [반만] 교체, 비음화
- ③ [받] 교체
- ④ [바치] 구개음화

정답 ①

6. ④ '덩굴'과 '넙쿨'이 표준어이다.

정답 ④

7. ① '에게'는 사람이나 동물에 쓰인다. 무생물엔 '에'를 쓴다. '일본에'가 바르게 쓰였다.

<오답풀이>

② '와'를 중심으로 양쪽구조가 동일해야 한다. 경쟁력을(O) 강화하고(P) 향상을(O)위해서(P)

③ 이것은 -> 이런 점을 볼 때

④ 티켓 -> 티켓을 얻을

정답 ①

8. ② 박경리 「토지」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 가문의 몰락과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 소설이다.

정답 ②

9. ③ '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'는 사람의 한평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의 속담

<오답풀이>

① 달도 차면 기운다 -> 세상의 모든 것은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

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. -> 한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하기 마련

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-> 권세가 당당하던 집도 몰락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진다

정답 ③

10. ② <보기> 200만명이 넘는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면역성이 없어서 죽었다는 내용이다.

① 유럽이 구세계

③ 무기가 아니고 병원균 때문이다.

④ 100만이 아니고 200만이다.

정답 ②

11. ① '주워서 버렸다'는 줍는 행위와 '버리는 행위'의 연결로 둘다 본용언이다.

정답 ①

12. ① '화랑도'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며 그것을 구체화한 설명문이다.

정답 ①

13. ① 삼각산은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다. 인왕산은 종로구와 서대문구 사이에 있는 산 이름이다.

정답 ①

14. 주어진 작품은 김승옥의 「무진기행」에서 출제되었다.

정답 ④

15. 동물을 먹는 행위와 식육 생산의 폭력적 측면을 말하고 있다. 채식주의는 반대 경우다.

정답 ①

16. 77세는 희수가 맞고 61세가 화갑 88세는 미수 99세는 백수이다.

정답 ②

17. ④ '알다'가 'ㅂ니다'앞에서 ㄹ이 탈락되어 '압니다'로 바르게 표기,
<오답풀이>

① 되+어=돼 로 표기해야 함

② '할게요'가 바른 표기. 의문일 때만 된소리표기, 어찌할까?, 할꼬?

③ 돕+고->돕고 가 바른표기 '도우고'는 잘못된 표기

정답 ④

18. ① '명사'를 수식하므로 관형사

<오답풀이>

② '다름이 아니라 곧'이란 의미의 부사

③ '그리고'는 접속부사

④ 의태어는 부사

정답 ①

19. ② 띄어쓰기가 바르게 되어있다.

- ① 부정어 '없다'앞에서 '밖에'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.
- ③ '깨나'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'보조사'이므로 붙여쓴다.
- ④ '김'은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뜻할 때 쓰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.

정답 ②

20. ②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감상을 위주로 썼다. 효용론적 관점이다.

<오답풀이>

- ① 반영론은 작품에 나타난 사회나 시대적 관점에서 쓴 글
- ③ 표현론은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
- ④ 객관론적관점은 작가, 발표연대, 표현장르 등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관점

정답 ②

<총평>

2018 서울시 9급은

문법 · 어휘 11문항, 국문학사 2문항, 독해 3문항, 평론 1문항, 시조 1문항, 소설 1문항이 출제되었다.

작년과 다르게 문법이 쉽게 나왔다. 어휘가 3문항, 발음 2문항, 품사와 띄어쓰기 3문항, 맞춤법 · 보조용언 · 어법 등 문제가 출제되어 대체로 신경향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. 국문학사는 현대문학사 중심이었고, 현대시가 출제되지 않은 점이 특이했다. 문학도 문학적 감상과 거리가 먼 문제였다. 지금까지 문제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문제였다. 그렇지만 독해 비중이 늘었다는 점과 서울시는 늘 새로운 문제 유형이 잘 나온다는 점을 늘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.